



2026학년도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중등 스포츠 축제 한마당 개최

- 소통과 협력의 장을 펼치다 -

지난 7월 10일(금)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교장 김명환)는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다섯 학년 약 860여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KIS 중등 스포츠 축제 한마당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특히 올해는 7학년이 1개 학급 늘어 6개 학급으로 구성되어 체육관 내에서 함께 진행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질서 있게 참여해 준 모든 학생들 덕분에 안전하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개회사에서 본교 김명환 교장은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스포츠 축제의 장이 되기를 당부하였으며, 학생들의 첫 무대인 학년별 퍼레이드 장면을 참관하면서 매우 감명 깊은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의 다양한 행사 중 이번 중등 스포츠 축제 한마당은 학생들의 기대와 참여 의지가 매우 강한 행사다. 학생들 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 협업, 인성 교육 증진의 취지로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스포츠 문화 축제로 자리 잡을 만큼 학생회를 중심으로 전체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KIS 학생들에게는 매우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학급별 퍼레이드,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꼬리잡기, 학년별 구기 대회, 2인 3각, 이어달리기 등 총 7개의 종목으로 학급별 대항전이 펼쳐졌으며, 5층 가운데홀에서는 별도로 중등·고등 각각 학생들의 다양한 꿈과 끼를 펼치는 ‘KISTAGE’ 공연이 동시에 실시되었다.

본교 학생회장 이정민 군은 스포츠 축제 한마당을 준비하면서 걱정도 많았지만, 막상 시작되니 학생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응원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다고 전했다. 특히 KISTAGE 진행 시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순간, 그리고 학급 퍼레이드에서 학급이 하나가 되어 안무를 맞추던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기억에 남는다는 소감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준비한 이희동 체육 교사는 아무리 힘든 업무의 연속에서도 학생들의 열정과 패기, 높은 참여 의지와 호응 등을 볼 때마다 본교에서 근무하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게 된다는 감동의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이런 학생과 교사의 적극적인 소통 과정이 곧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가 명품 한국국제학교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자료]

